

성폭력 피해 적극대응 늘었다

세계성폭력추방주간 맞아 성폭력상담소 상담결과 발표

6994.12.2

세계 성폭력 추방주간을 맞아 성폭력 상담소(소장 최영애)가 연(22일, 기독교연합회관 중강당) '성폭력 해결을 위한 진단과 전망' 심포지움은 실제 상담실태가 발표돼 성폭력문제의 심각성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성폭력상담소가 문을 연 이래 상담건수는 총6천6백18회에 걸쳐 4천5백20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성폭력에 대한 상담은 3천1백75건(70.2%). 이중 13세 이하인 미성년자가 28.5%를 차지해 어린이성폭력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자가 가해자를 아는 경우가 72.0%, 친족(6촌 이내)이 24.9%를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이한 점은 성폭력 사례 중 피해자가 고소하거나 신고한 경우가 91~92에는 16%, 93년 16.3%, 94년 23.6%로 증가하고 있어 성폭력특별법 제정 이후 변화된 양상을 나타냈다.

성폭력사건 발생시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긴급의료정보, 법적대응 정보 등을 지원하기 위해 24시간 운영되는 위기센터는 피해자 원인유발론이나 수사, 재판과정에서 받는 이중의 고통, 증거확보의 어려움 등이 여전히 해결과제로 제기되었고, 지금까지 총 1백67건(전체의 7.71%)을 상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은 강간이 84건(50.4%), 강제추행이 67건(40%), 기타 특수강간 등이었고, 관계는 아는 사람이 55.1%, 모르는 사람이 43.7%로 나타났다.